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8)

주제: 동아시아 불교 변용에서 바라 본 일본 불교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8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 도옥잔(涂玉蠡)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불교 변용에서 바라 본 일본 불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도 교수는 먼저 미국 퓨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글로벌 종교 경관(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과 일본에서 발표한 「종교연감(年鑑)」을 통해 미국, 일본의 불교 신자 분포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불교의 전파, 일본 불교와 계율(戒律), 일본 정토교(淨土教)의 금생(今生)·내세(來世)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불교 변용에서 바라 본 일본 불교의 특색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아시아 불교의 전파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불교의 주요 전파 경로로 남쪽으로는 남전불교, 북쪽으로는 동아시아계 불교, 티베트계 불교가 있다. 그 중 동아시아계 불교는 중국을 원천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 전해져 2천년간 정신적 지주와 우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대승불교(大乘佛敎)를 특색으로 한어권(漢語圈) 불교를 형성하였다. 동아시아계 불교는 한역경전(漢譯經典)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지의(智顓)의 「오시팔교(五時八敎)」, 즉 화엄(華嚴)→아함(阿含)→방등(方等)→반야(般若)→법화열반(法華涅槃)으로 불설경전(佛說諸經)을 재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율(戒律)의 경우 중국 출가인(出家人)이 계를 받을 때 「법장부(法藏部)」의 사분율(四分律)을 기초로 하며, 동시에 대승불교(大乘佛敎)의 범망계(梵網戒)를 받는다.

도 교수는 동아시아계 불교의 근원인 중국 홍전경률(弘傳經律)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일본에서의 계율(戒律) 수용과 특색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 불교와 계율(戒律)

계율(戒律)은 불교 교단(敎團)의 규율이라 할 수 있다. 계율이 없으면 교단(敎

團)의 형성이 어렵다. 소승계(小乘戒)는 승인(僧人)들의 일상생활을 규범화하며, 대승계(大乘戒)는 보살계(菩薩戒)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상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국 감진(鑑真)(688-763)이 일본에서 전수받은 것도 법장부(法藏部)의 사분율(四分律)이다. 그러나 일본 불교에서 사이초(最澄)(767-822)는 대승불교(大乘佛敎)는 소승계(小乘戒) 없이 대승계(大乘戒)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일본 불교의 계율(戒律)은 느슨해져 후대 승인(僧人)들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가마쿠라시대에서 호넨(法然)은 수계(守戒), 과계(破戒)를 막론하고 염불(念佛)로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호넨(法然) 교단(敎團)에서 계율(戒律)을 무시하는 행위, 「조악무애(造惡無礙)」도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란(親鸞)(1173-1263)은 월후(越後) 유배 때 다시 속세로 돌아가는 환속(還俗)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비승비속(非僧非俗)」을 제창하였고, 신란(親鸞)의 처대(妻帶) 생활이 진종(眞宗)의 특징이 되었다. 메이지(明治) 이후 다른 종교로 확대되면서 일본 불교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정토교(淨土敎)의 금생(今生)·내세(來世)

일본 불교는 흔히 장례불교(葬禮佛敎)로 불린다. 일본 장례불교의 사자(死者) 의례는 정통 불교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후 왕생정토(往生淨土)의 이론은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정토교(淨土敎) 문헌의 이론과 실천 체계는 금세(今世)의 삼매(三昧/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 심일경성이라 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정신력) 획득을 중시하고, 민중의 신앙에서는 내세(來世)의 왕생(往生)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렇다면 금세(今世)의 삼매(三昧) 획득은 내세(來世)의 왕생정토(往生淨土)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은 현존하는 정토경전(淨土經典) 중 금세(今世)에서 삼매(三昧)를 얻어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보는 법을 기술한 경으로, 가장 오래된 정토경전(淨土經典)이다. 이러한 「반주삼매(般舟三昧)」 견불(見佛) 사상의 발전은 중앙아시아에서 관불(觀佛)의 수행법을 형성하였고, 그 중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대상으로 한 관불(觀佛) 방법이 가장 보편화되었음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관경(觀經)』은 금세(今世)의 관불(觀佛) 수행과 내세(來世)의 왕생(往生)을 교묘하게 결합하였다.

수나라의 혜원(慧遠), 지의(智顓)는 『관경(觀經)』을 「이관(理觀)」으로 해석하였는데, 이관(理觀)은 아미타불과 정토(淨土)를 우리 안에 내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나라의 선도(善導)(613-681)는 정토(淨土)를 마음의 바깥 서쪽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아미타불과 정토(淨土)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선도(善導)의 해석은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 민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선도(善導)의 영향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었고, 멀지않아 이관(理觀)의 수법(修法)이 다시 되살아났다. 후대 중국 불교는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로 삼았고, 선관(禪觀)과 염불(念佛)을 동시에 수련함으로써 내세(來世)에는 정토(淨土)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복합적인 형태를 형성하였다.

일본에서는 호넨(法然) 이후 이성적 관불(觀佛)의 일면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호넨(法然)은 「편의선도(偏依善導)」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염불(念佛) 이외의 제행(諸行)은 모두 잡행(雜行)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호넨(法然)은 금세(今世)의 견불(見佛)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내세(來世)의 왕생(往生)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 또 호넨(法然)의 제자 신란(親鸞)은 더 나아가 평생왕생(平生往生)을 주장하였으며, 범부(凡夫)의 왕생행(往生行)은 아미타불이 이미 고쳐주었다고 여겼다. 범부(凡夫)가 해야 할 일은 아미타불을 믿고, 은혜를 갚으며, 염불(念佛)하는 것이다. 신란(親鸞)의 염불관(念佛觀)은 염불(念佛)이라는 수행 방법을 통해 개오(開悟)의 행위에서 구속(救贖)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내세(來世)의 사상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세(來世)는 전근대적 미신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교의 완고함과 평판을 조롱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불교계(佛敎界)는 불교가 본래 현세(現世)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지, 내세론(來世論)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도 교수는 이 세상의 것을 다시 되찾고 금세(今世)와 내세(來世)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涂玉璽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